

이재성·강다슬, 육상 남녀 400m 계주 한국신 ‘쾌거’

〈광주시청〉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남자 400mR 사상 첫 금메달 획득
여자 400mR 11년만에 기록 수립

광주시청 이재성(24)과 강다슬(33)이 한국 육상 남녀 400m계주 신기록을 견인했다. 이재성은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계주에 출전, 한국신기록과 함께 사상 첫 아시아선수권 금메달이라는 위업을 달성했고, 강다슬은 여자 400m계주에 나서 1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재성은 3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서민준(21·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19·예천군청), 이준혁(24·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춰 38초49로 우승했다.

이재성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서민준의 출발이 좋았고 두번째 주자 조엘진이 스피드를 올린 가운데 이재성이 바통을 이어받아 앵커 이준혁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준혁이 2위권과 거리를 유지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이 실격되면서 다롄팀 챔피언 태국(38초78)과 홍콩(39초10)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한국 남자 400m 계주의 아시아선수권 금메달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번 대회 전까지 아시아선수권에서 동메달만 4번(1981년, 1983년, 1985년, 2023년) 뒀다.

한국신기록도 다시한번 갈아치웠다.

이날 계주 멤버는 지난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 1조에서 38초51의 한국신기록을 세운 선수들. 20일 만에 다시 한번 트랙에서 호흡을 맞춘 4명의 태극전사는 한국기록을 0.02초 단축했다. 또한 2023년 방콕 대회에서 태국이 우승하며 달성한 38초55보다 0.06초 빠른 대회신기록도 작성했다.



광주시청 이재성과 강다슬이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녀 400m 계주에서 동반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광주시청 육상팀 노승석 코치,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 이재성, 강다슬, 김재대 광주시육상연맹 전무이사(왼쪽부터).

이날 금빛 레이스를 펼친 선수들은 모두 10초 중반대의 100m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다. 이준혁이 10초18, 조엘진 10초30, 이재성 10초32, 서민준 10초35의 개인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기록단축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강다슬이 뛰 여자 400m 계주도 1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강다슬은 이날 대회 여자 400m 계주 결승에

서 이은빈(19·해남군청), 김소은(22), 김다은(22·이상 가평군청)과 호흡을 맞춰 44초45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은빈이 첫번째 주자로 나섰고 강다슬이 두번째 주자로 바통을 받아 김소은에게 넘겼다. 그리고 김다은이 앵커로 달렸다.

한국은 중국(43초28), 인도(43초86), 태국(44초26)에 이어 4위를 하며 입상은 하지 못했

으나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선애·강다슬·정한솔·김민지)에서 세웠던 한국기록(44초60)을 0.15초 앞당기는데 성공했다. 특히 강다슬은 11년 만에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의 주인공이 되는 감격을 누렸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은 “광주시청 소속 이재성과 강다슬이 각각 남녀대표팀에서 노력한 결과 결실을 맺고 메달과 함께 한국신기록

을 수립해 반갑다”고 말했다. 심 감독은 “특히 남자 계주는 세대교체가 이뤄진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이전세대와는 확연히 달라 연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한 뒤 “여자 계주에선 강다슬이 만년니로서 신에 이은빈, 그리고 현재 단거리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쌍둥이 자매 김소은 김다은을 이끌면서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KIA 강동훈 “슬라이더 자신…1군 목표”

소프트뱅크전 5⅓이닝 1실점 호투

KIA 타이거즈 2년차 투수 강동훈(25)이 소프트뱅크와의 교류전에서 호투하며 1군 데뷔를 기약했다.

강동훈은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호크스 3군과의 교류전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6탈삼진을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롯데전에서 5이닝 4실점을 기록한 강동훈은 이날 선발 투수로 제 몫을 해냈다.

강동훈은 “교류전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해서 오늘은 꼭 이기고 싶었고 생각한 대로 던져서 좋다”며 “이전 경기에서 중간중간 흔들렸는데 오늘은 생각을 비우고 몸쪽 공을 많이 던지자는 전략이 잘 통했다. 자신 있게 던지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남남산초-정주중-정주고-중앙대를 거친 강동훈은 지난 2023년 열린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5라운드 46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185cm 98kg의 체격을 갖춘 강동훈은 대학 시절에는 긴 이닝을 소화하며 연투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고 구속 150km의 직구와 함께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선발 투수로서의 자질을 평가받고 있다.

퓨처스리그를 뛰고 있는 강동훈은 지난해 16경기에 등판 3승 6패 평균자책점 5.98을 기록했다. 올해는 8경기 1승 4패를 기록 중이다.

강동훈은 “슬라이더가 제일 자신 있는데 오늘은 커브가 잘 들어가서 만족스럽다”며 “일본 타자들은 변화구에 약하다는 분석이 있어서 직구를 중심으로 밀어붙였고 그게 잘 통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한일전 명승부를 보며 자라서 일본에는 지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군 무대는 아니지만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등판도 강동훈에게 특별했다. 강동훈은 “작년 올스타전보다는 관중 수가 적었지만 분위기나



KIA 타이거즈 강동훈

마운드 상태가 훨씬 좋았다. 확실히 함평보다 마운드가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직구 구속은 현재 140km 초반대지만 점차 몸이 올라오면서 구속과 제구 모두 개선되고 있다. 강동훈은 “초반 적은 이닝을 소화했을 때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닝을 많이 소화하면서 책임감이 생겼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잘해야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 이닝을 던졌던 강동훈은 올해 20%이닝을 기록 중이다.

강동훈은 “몸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아픈 곳은 없다”며 “목표는 당연히 1군 콜업이다. 몸 상태를 끌어 올려 더 잘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조혜원 기자

순천미래과학고 박예지,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 ‘은’

순천미래과학고박예지(2년)가 제29회 전국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겸 아시아·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박예지는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52kg급에 출전해 대학부 선배들을 연달아 제치고 당당히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국 최고 권위의 청소년 대회로서 고등부와 대학부가 함께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박예지는 -52kg급 16강에서 김도경(용인대 1년)을, 8강에서 나선영(선문대 1년)을 모두 한 판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도 김민경(한국체육대 2년)에 절반승을 거두며 파



박예지가 최근 제29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겸 아시아·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여자부 -52kg급 은메달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죽지세로 결승에 진출하는 이벤트를 이어나갔다.

결승에서 백지호(주산산업고 3년)에 막혀 금메달을 아쉽게 놓쳤지만, 거침없는 경기운영과 투혼으로 노련한 대학 상위권 선수들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결승까지 진출하는 괴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학생선수들을 받기 시작해 올해 정식 학교운동부로 출범한 순천미래과학고 유도부는 박예지의 돌풍으로 창단 첫 해부터 전국 무대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효수 전남유도회 회장은 “박예지 선수의 은메달은 단순한 입상을 넘어 전남 유도의 재도약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성과다”며 “앞으로도 유도 저변 확대와 학교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서진여고 김태연·방나린, 소프트테니스 주니어대표 선발

선발전 개인복식 2위

서진여자고등학교 김태연과 방나린(이상 2년)이 2025 소프트테니스 한국 주니어대표로 선발됐다.

김태연과 방나린은 지난달 31일 순창돔소프트테니스 경기장에서 끝난 2025소프트테니스 한국 주니어대표 최종선발전 승자조 경기에서 조리과학고 임수연·김나현 조에게 3-5로 아쉽게 패했으나, 패자부활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개인복식 2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패자조 16강에서는 김주은-황연아(창원명곡고)조를 5-2로 꺾었고, 8강에서는 황수영-이세현(우석여고)조를 상대로 다시 한 번 5-2 승리를 거뒀다. 이어 4강에서는 소채은-오다연(서진여고)조를 5-0으로 완파했고, 패자결승



서진여자고등학교 김태연과 방나린이 지난달 31일 2025 소프트테니스 한국 주니어대표선발전에서 개인복식 2위를 기록, 주니어대표로 선발됐다.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 제공

에서 조예빈-정수원(대전여고)조를 상대로 5-0 완승을 거두며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용기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은 “김태연과 방나린 선수는 물론 이들을 지도해온 지도

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광주 소프트테니스의 앞날이 더욱 밝아진다면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